

기술표준뉴스

기술표준원장, 국제표준화기구 (ISO) 이사회 이사로 확정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이 2010년부터 임기 2년의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었다. ISO 이사회는 ISO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며, ISO 이사회의 그룹2에 속하는 국가

중 이번 2년 임기의 이사회에 우리나라와 함께 진출한 국가는 러시아, 이태리, 캐나다, 노르웨이 등 5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ISO의 기술관리이사회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이사회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사회와 기술관리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이사회와 기술관리이사회의 이사를 모두 보유하게 되는 국가는 미국 등 8개국으로서 ISO의 경영 및 기술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번 ISO 이사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최근의 국제표준화활동과 표준외교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ISO 내에서는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또한,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은 지난 2008년 부임한 이래 양자표준화협력에 주력한 결과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표준회의(PASC) 등 지역 표준화기구 및 러시아, 스웨덴, 호주, 이집트 등 대륙별 거점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협력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최근 초·중·고·대학 등의 정규 수업으로 표준 교육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개도국 표준전문가에 대한 표준화 연수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ISO 회원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우리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크게 활발해져서 '00년까지 11건에 불과하던 국제표준 제안은 '08년 6월에는 누적 280건이 되었으며, '00년에 3명뿐이던 '제안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다루는 기술위원회 의장단도 '08년 6월 현재 86명으로 급증하였다.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을 계기로 ISO 국제표준화 정책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화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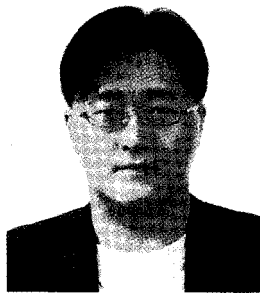
주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성장동력산업과 녹색산업을 글로벌 그린 스탠더드화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화 역량 확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멀티미디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분과위원회(IEC TC 100/TA 4) 국제의장과 간사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동시 선출됨으로서 해당분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의장 : 한국산업기술대 이재명 교수



국제간사 : 전자부품연구원 최광순 선임연구원

※ IEC :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멀티미디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분과(TA 4)는 UISN, WSN, DMB 및 근거리 통신기술 등 미래 디지털 융합시스템의 글로벌 상호호환 및 공

유를 위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동 분야 간사국을 수입해 오면서 T-DMB 수신기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기능 등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이번 국제의장 및 간사 진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신규로 선임된 의장·간사는 오는 10월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시 부터 T-DMB 수신기 등에 관한 국제표준 작업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멀티미디어시스템 분야 의장·간사 수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홈 네트워크 에너지 절감기술 등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활동에 주력하고 디지털 부품 및 융합분야 R&D 연계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173개 기술위원회 중에서 국제표준화에 영향력을 갖는 주요보직에 의장 3명, 간사 4명, 컨비너 12명 및 31명의 프로젝트 리더 등이 활동하게 되어 표준전쟁시대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총 55건의 우리기술을 IEC 표준에 반영시켜왔으며 최근 들어 연간 10여건의 표준을 제안하는 등 점진적인 표준화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IT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만제로 장례식장 서비스, KS인증 실시

기술표준원은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등에 이어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8월 12일부터 KS 인증을 실시한다. KS 인증 실시는 일부 장례식장의 불친절과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장례식장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유족과 조문객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례식장 현황: 사업체수(839개, '08년), 이용자수(2,200만명, '07년), 매출규모(1조 7천억원, '05년)

장례절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장례식장은 이 기준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 인증심사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증심사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장례식장 심사"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장례식장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장례식장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KS 인증 장례식장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것이다.

이번 장례식장 서비스 KS 인증의 실시로 높아지는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맞춘 전문화된 장례 서비스의 제공과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등 4개분야에 이어 KS표준이 제정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으로 서비스 KS인증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KS 인증포시 및 사업장 표시판»



기술표준뉴스

미래 표준강국을 선도하기 위한 『제4회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 개최

기술표준원은 표준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 표준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올해 5월말부터 6월 초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편리해진 사례”(중등부)와 “표준화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고등부)라는 주제로 예선과제를 공고하여 178개 참가팀을 접수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핸드폰 키패드, 비스 정류장 디자인, 자동차 연료 주입구, 매운맛의 단계별 표준화 등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제안되었고, 중등부 40개팀과 고등부 40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인화여자고등학교(교장 변종섭)가 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표준화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목적으로 ‘로봇과 표준’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로봇개발 과정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대회 2일차에는 표준과학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표준화를 체험하게 하였다.

표준개발 활성 업무를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13개 신규 지정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의 개발·관리업무를 민간의 표준화 전문기관에 이양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 한국전자과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2012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 민간이양 계획 중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추진한다.

새로 지정된 13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철강, 공작기계 분야의 제조자 협회와 철도기술, 세라믹, 전자과 분야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이며 이로써 총 37개 지정기관에서 국가표준 23,062종의 23.5%인 5,420종의 개발·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표준개발협력기관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한국전자과연구원,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크레인안전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계량측정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국철강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상 13개 신규 지정기관)



2009.8.28(금)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 수여식 장면
(장소: 기술표준원 대회의실)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분야의 중·장기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표준 제·개정을 표준 수요사의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며, 표준화 기반조성 및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표준 개발·관리업무의 80%를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민간이양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2 단계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정분야 국가표준의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의 개발·관리 업무가 민간이양됨에 따라 행정처리 (심의, 고시 등)는 정부가 맡고

집행업무 (기술검토, 의견수렴, 표준 작성 등)는 협력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표준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시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선진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설명】

* 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로서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기관

「기업보유 그린IT 기술의 국제표준화」세미나 개최

기술표준원은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처수단이며 불루오션인 그린IT 분야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삼성·LS산전·KT 등 기업이 보유한 녹색기술 표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표준화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체가 참여하는「그린IT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동 연구회에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유/개발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지원을 받게 하고, 필요시 국제표준화시켜 기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으로 인한 수익극대화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지식경영을 통한 신사업창



기술표준뉴스

출'을 모델로 동연구회를 이종 기술관계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지식경영의 장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그린IT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삼성전기, LS산전, 삼성불산 등 국내기업의 그린IT 기술 및 표준화 추진 사례, SIEMENS, IBM 등 글로벌기업의 전세계 표준전략 및 그린IT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기술표준원은 녹색성장의 그린IT 정책, 블루오션으로서 그린IT 성장력, 다양한 표준전략 예시, 지식경영을 통한 신사업창출, 표준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며 11월에도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여 더 많은 기업체의 『그린IT 표준기술연구회』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 2009. 9